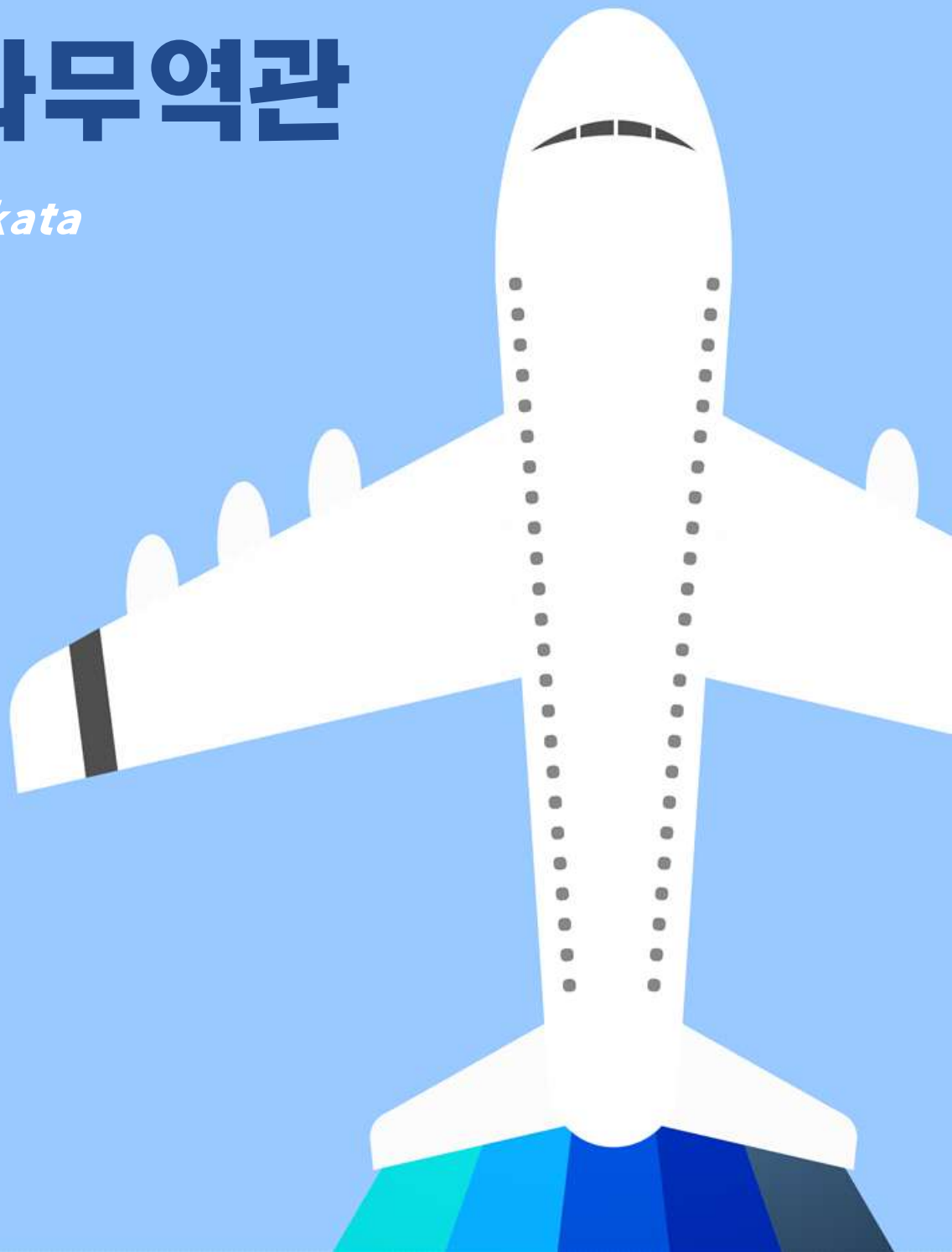


2025 해외출장 가이드

인도 콜카타무역관

KOTRA Kolkata



목 차

I. 인도 콜카타무역관 안내	1
II. 인도 경제 동향	2
III. 한-인도 무역투자 동향	5
IV. 웨스트벵갈주 현황	8
V. 비즈니스 상담 요령	13
VI. 기타 참고자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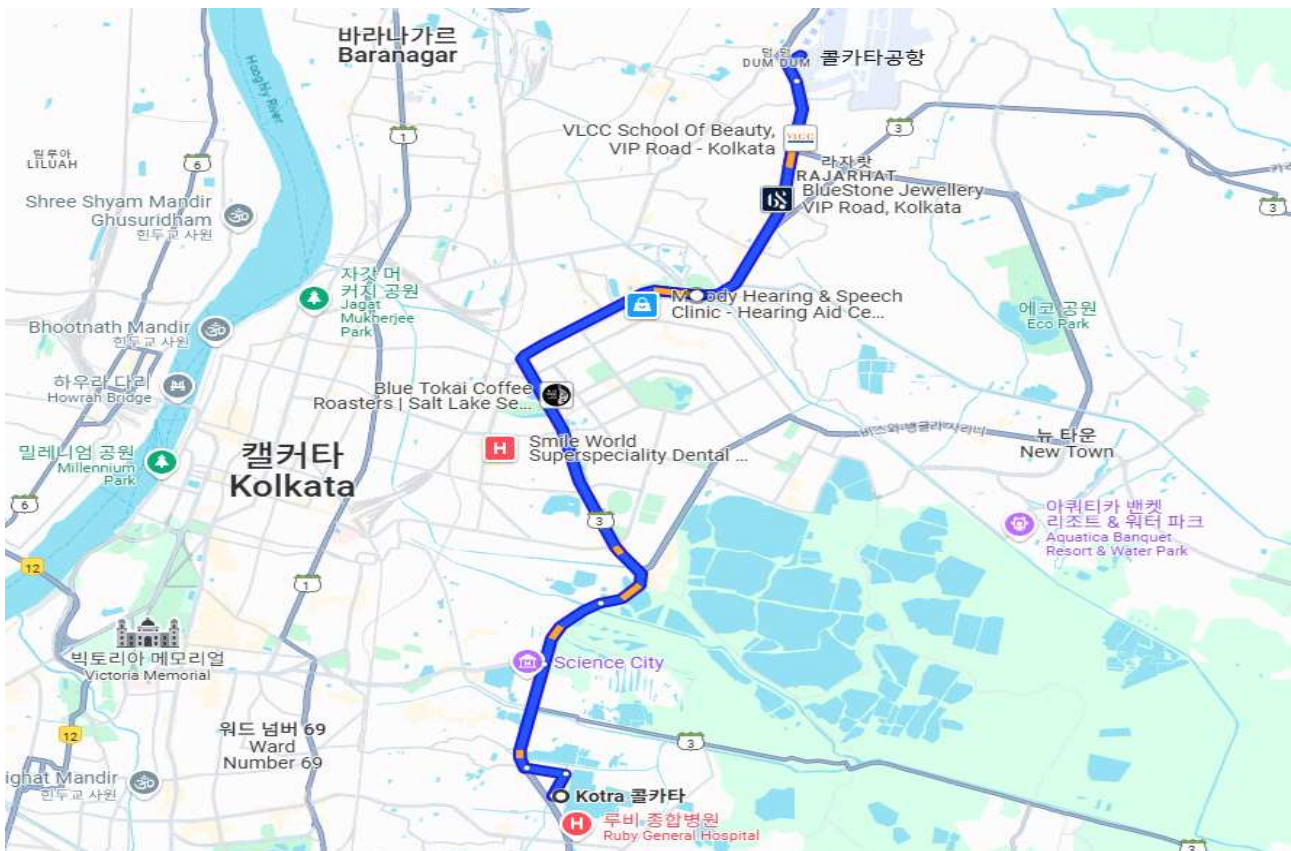
I. 인도 콜카타무역관 안내

□ 출장지(콜카타) 시간대 및 날씨

- 시차 : - 3시간 30분 (한국 오후 12시 30분 = 인도 오전 9시)
- 기후 : 15°C~40°C (겨울철-여름)
- 복장 : 비즈니스 캐주얼

□ 콜카타 무역관(Korea Trade Office, Kolkata)

주소	South City Business Park Unit 703, Eastern Metropolitan Bypass, Anandapur, Kolkata, West Bengal 700107, India
대표 전화	+91-91477-19226
이메일	kolkata@kotra.org.in



II. 인도 경제 동향

1. 인도 개황

□ 국가 개요

국 가 명	인도 (Republic of India)
수 도	뉴델리(New Delhi)
면 적	3,287,263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 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북부) 등 다양
인 구	14억 2,575만 명 (UN, 2023.4월)
연방구성	28개 주(State) 및 8개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
주요 도시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벵갈루루, 암다바드, 하이데라바드
언 어	힌두어, 영어 외 21개
민 족	인도-아리안(72%), 드라비다(25%), 몽골계 및 기타(3%)
종 교	힌두교(79.8%), 이슬람(14.2%), 기독교(2.3%), 시크교(1.7%), 불교(0.7%), 자인교(0.4%), 기타(0.9%)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화 폐	Rupee (Rs) (* USD 1 ≒ Rs. 85.29), (인도중앙은행, 2025.5.15)
건국(독립)일	1947년 8월 15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드라우파디 무르무 (Draupadi Murmu) ○ 취임일: 2022년 7월 25일 ○ 소속 정당 :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 취임일: 2014년 5월 26일 (2024년 연임) ○ 소속 정당 :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자료원 : 인도정부포털(India.gov.in), 인도중앙은행(RBI), UN

2. 인도 경제 동향

□ 인도 주요 경제지표

GDP	USD 3조 9,090억 (2024, IMF)			
경제성장률	6.5% (2024, IMF)			
1인당 GDP	USD 2,711 (2024, IMF)			
실업률	7.9% (2024, CMIE)			
물가상승률	4.7% (2024, MOSPI) *소매물가(CPI) 기준			
환율	USD 1 = Rs. 85.29 ('25.5월, RBI)			
외채	USD 7,179억 ('24년 RBI)			
외환 보유고	USD 7,048억 ('24년 RBI)			
수출입 규모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액	453,291	431,477	442,793
	수입액	720,179	670,303	717,126

자료원 : 인도중앙은행(RBI), IMF, CMIE(Center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 2025년 경제 동향

- 세계 경제는 무역갈등 심화와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불안정한 국면에 처해있음
 - 최근 관세급등으로 인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생산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망 혼란, 금융시장 불안정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견조한 소비와 정부 지출에 힘입어 여전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국 중 하나로 남아 있음
 -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상품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현재 면제 대상인 제약, 전자, 반도체, 에너지, 구리 등의 분야가 경제적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면제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 상존함
 - UN은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25년 인도경제가 6.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인도 대외 무역

□ 수출입 동향

- '24년 기준, 무역규모 1조 달러 초과하였으나, 무역적자는 지속
 - (무역규모) 전년대비 5% 증가한 1조 1608억 달러
 - (무역수지) 수출액 대비 수입액 증가폭 확대로 무역적자 전년 대비 6.59% 증가

<인도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276,467	395,471	453,259	431,420	442,705
수입	373,283	573,173	720,195	673,720	718,163
무역수지	-96,816	-177,702	-266,936	-242,300	-275,458

자료원: 인도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국가별 현황

- 주요 무역 대상국, 교역규모 기준 ①미국 ②중국 ③UAE ④러시아 등임
 - (수출)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수출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54%를 차지
 - (수입)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수입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62%를 차지

<인도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국가명	2023	2024	증가율(%)	국가명	2023	2024	증가율(%)
미국	75,650	80,775	6.77	중국	99,592	109,359	9.81
UAE	33,009	37,792	14.49	러시아	60,587	65,727	8.48
네덜란드	23,110	24,835	7.47	UAE	45,494	61,015	34.12
싱가포르	12,036	15,894	32.06	미국	44,411	44,421	0.02
중국	16,232	15,141	-6.72	사우디	33,639	30,771	-8.53
영국	12,424	14,299	15.09	이라크	29,192	30,344	3.94
사우디	10,833	12,285	13.40	스위스	19,668	25,168	27.96
방글라데시	11,256	11,483	2.02	인도네시아	22,634	23,831	5.29
독일	9,666	10,417	7.77	한국	21,360	20,944	-1.95
이태리	8,403	8,472	0.82	싱가포르	21,519	20,552	-4.49
남아공	8,019	8,259	2.99	홍콩	19,548	19,659	0.57

자료원: 인도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품목별 수출입

- 2024년 인도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에너지(정유, 원유, 석탄), 다이아몬드, 금임
 - (주요 수출품) 정유, 통신기기, 의약품, 다이아몬드, 귀금속, 쌀, 자동차부품 등이며, 10대 수출품목 중 정유, 귀금속 제외 모두 전년대비 수출 증가
 - (주요 수입품) 원유, 금, 석탄, 집적회로, 다이아몬드, 통신기기, 항공기 등이며 10대 수입품목 중 의약품, 통신기기 제외 모두 전년대비 수입 증가
- 오일(원유, 정유)은 인도의 최대 수출품인 동시에 최대 수입품으로, 수출은 네덜란드, UAE, 미국 순이며 수입은 이라크, 러시아, 사우디 순임

<인도의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율	코드	품목	2023	2024	증감율
1	2710	정유	84,969	70,732	-16.75	2709	원유	140,378	147,234	4.88
2	8517	통신기기	15,645	22,084	41.16	7108	금	42,580	58,096	36.44
3	3004	의약품	18,823	20,965	11.38	2701	석탄	37,085	32,051	-13.57
4	7102	다이아몬드	18,151	14,395	-20.69	8542	집적회로	24,860	30,186	21.42
5	7113	귀금속	12,702	12,324	-2.98	7102	다이아몬드	19,210	23,844	24.12
6	1006	쌀	10,463	11,826	13.02	8517	통신기기	21,992	17,837	-18.89
7	8708	자동차부품	7,043	7,535	6.99	8802	항공기	16,545	17,682	6.87
8	8703	자동차	6,724	6,982	3.84	8471	컴퓨터	11,282	13,870	22.95
9	8802	항공기	499	6,034	1,108.40	2710	역청유	9,358	10,678	14.10
10	2933	질소화합물	3,982	5,369	34.86	1511	팜오일	11,586	9,364	-19.18

자료원: 인도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4. 인도 투자현황

□ 인도의 투자유치(FDI) 현황

○ (연도별) 2023/24 인도 투자유치금액은 전년 대비 3.4% 하락한 444.2억 달러

<최근 4개년 인도의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59,636	19.0	58,773	△1.0%	46,034	△21.7%	44,423	△3.4%

자료원: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DPIIT: Department for Promot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 (국가별) 누적 기준, 對인도 투자국 순위는 ①모리셔스, ②싱가포르, ③미국 순임

<국가별 인도의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국가	2020/21	2021/22	2022/23	2023/24
1	모리셔스	5,639	9,392	6,134	7,970
2	싱가포르	17,419	15,878	17,203	11,774
3	미국	13,823	10,549	6,044	4,998
4	네덜란드	2,789	4,620	2,498	4,924
5	일본	1,950	1,494	1,798	3,177
총 FDI 유입액		59,636	58,773	46,034	44,423

자료원: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DPIIT: Department for Promot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 (분야별) 누적 기준, 對인도 투자 주요 분야는 ①서비스와 ②컴퓨터 분야로, 서비스는 금융, 은행, 보험, R&D, 기술 등을 포함

<업종별 인도의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분야	2020/21	2021/22	2022/23	2023/24
1	서비스 분야	5,060	7,131	8,707	6,640
2	컴퓨터 소프트웨어	26,145	14,461	9,394	7,973
3	무역	2,608	4,538	4,792	3,865
4	통신	392	668	713	282
5	자동차 산업	1,637	6,994	1,902	1,524

자료원: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DPIIT: Department for Promot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 인도의 해외직접투자(ODI) 현황

○ (연도별) 2023/24 인도의 해외투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42.67억 달러

<최근 4개년도 인도의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3,173	△2.5	12,103	△8.1	18,496	52.8	13,629	△26.3	14,267	4.7

자료원: 인도 경제부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주: 2023/24 증감율은 직전 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국가별) 누적 기준, 인도의 해외투자국 순위는 ①싱가포르, ②모리셔스, ③미국 순임

<국가별 인도의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21/22	2022/23	2023/24	2023/24증가율
1	싱가포르	4,497	2,203	3,974	80.4
2	미국	3,514	2,057	2,666	29.6
3	영국	2,352	2,739	1,336	-51.2
4	네덜란드	1,050	984	1,109	12.7
5	모리셔스	1,364	1,130	485	-57.1
합계		12,777	9,113	9,570	5.0

자료원: 인도 경제부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 (업종별) 최근 3년간 인도의 해외투자 주요 분야는 금융보험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 농업, 건설 등임

<최근 3개년 업종별 인도의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2021/22	2022/23	2023/24	2023/24 증가율
1	금융, 보험 서비스업	8,130	4,057	6160	51.8
2	제조	4,249	3,543	3268	-7.8
3	도소매, 식당, 호텔	2,312	2,904	1821	-37.3
4	농업, 광업	1,010	1,208	775	-35.8
5	건설	1,030	591	592	0.2

자료원: 인도 경제부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Ⅲ. 한-인도 무역투자 동향

1. 한-인도 무역 동향

□ 수출입 동향

- '24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7대 수출 및 24대 수입국, 4대 무역흑자국
 - (수출) '24년 대 인도 수출은 18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
 - (수입) '24년 대 인도 수입은 64억 3천 1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
- 무역수지는 CEPA 발효 이전 5개년 간 평균 6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다 점차 증가하여, '1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 단,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인도 수출이 큰 폭 감소(△20.9%)하며 흑자 폭도 감소

<최근 5년간 한-인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對인도 수출	15,096	11,937	15,603	18,870	17,950	18,696
對인도 수입	5,565	4,901	8,056	8,897	6,728	6,431
무역 수지	9,531	7,037	7,547	9,973	11,222	12,265

자료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품목별 동향

- '24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3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48.7%를 차지

<한국의 對인도 5대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2023	2024	증감(%)	품목	2023	2024	증감(%)
1	집적회로반도체	1,919	2,687	40.0	나프타	1,632	1,430	-12.38
2	합성수지	1,748	1,733	-0.9	알루미늄스크랩	875	613	-29.94
3	자동차부품	1,199	921	-23.2	의약품	588	565	-3.91
4	윤활유	851	933	9.6	연괴와 스크랩	250	235	-6.0
5	열연강판	887	840	-5.3	합금철	249	290	16.47
	합계	6,604	7,114	7.7	합계	3,594	3,133	-12.8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2. 한·인도 투자 동향

□ 한국의 對인도 투자현황

- (투자개요) 1980년부터 2024년 총 94.59억 달러를 투자
 - '96~'97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0년 전후 인도의 경제성장과 CEPA발효 이후 진출 확대
 -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인도 공장 증설 중

<연도별 對인도 투자진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개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금액	453	625	343	371	722	929
신규법인수	130	75	56	59	75	11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분야) 제조업이 가장 큰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도소매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순서로 투자 진출

<업종별 對인도 투자진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업종	2023년		2024년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제조업	211	29	350	55
도·소매업	8	14	47	23
건설업	0	1	6	7
정보통신업	37	7	3	3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기업규모)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 진출, 주로 건설, 제조 분야 진출

<기업규모별 對인도 투자금액현황>

(단위 : 개사, 건, 백만 달러)

기간	2023년		2024년	
구분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대기업	631	15	800	19
중소기업	87	44	127	66
기타	3	16	2	26
총계	722	75	929	11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인도의 對한국 투자현황

- (투자개요) '24년 투자금액은 2.1백만달러이며 투자업체수는 23개사로서 금액기준 전년 대비 47.7% 증가하였고 업체기준 91.6% 증가하였음

<연도별 인도의 對한국 투자현황>

(단위 : 천 달러, 건, 개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고금액	96,638	1,433	2,022	81,466	1,657	2,636
신고건수	16	12	10	17	15	17
도착금액	44,998	729	910	485	1,426	2,107
업체수	8	5	7	8	12	23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분야) 2023년까지 누적 신고액 기준,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76.3%,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의 23.4%를 차지

<업종별 인도의 對한국 투자현황>

(단위 : 천 달러, %)

업종	2022년			2023년			누적액 (1962~2023년)		
	신고 금액	신고 건수	비율	신고 금액	신고 건수	비율	신고 금액	신고 건수	비율
제조업	30,384	2	37.3	0	0	0.0	581,500	58	76.3
서비스업	51,082	15	62.2	1,657	15	100.0	178,107	672	23.4
전기가스·수도 환경정화·건설	0	0	0.0	0	0	0.0	2,456	7	0.3
농·축·수산·광업	0	0	0.0	0	0	0.0	90	1	0.0
총계	81,466	17	100.0	1,657	15	100.0	762,153	738	100.0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진출사례)

- 유통, 식품분야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마힌드라(Mahindra)가 쌍용차 지분 인수(4.6억 달러, 2011년) 이후 2013년 800억 원, 2019년 500억 원 등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타타(TATA)의 대우상용차 지분 인수 (1억 달러, 2004년)
- 인도의 TATA consultancy service(연락사무소, 2003년), HTC Global Service (2013년 한국 진출), Tech Mahindra(연락사무소, 2014년)와 같은 IT서비스 기업 일부가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

IV. 웨스트벵골주 현황

1. 개요

- 웨스트벵골 주정부 공식 출범 (1950. 1. 26.)
- 위치 : 동쪽으로는 아쌈 주와 시킴 주 및 부탄과, 남서쪽으로는 오디샤, 서쪽으로는 자르칸드와 비하르, 북서쪽으로는 네팔과 경계
- 면적 : 88,752km² (면적기준 인도 내 14위)
- 인구 : 9천 134만 명
- 주도 : 콜카타(Kolkata / 舊명칭은 Calcutta)
- 행정구역 : 23개 District
- 공식 언어 : 벵골어(Bengali), 영어,
* 다즐링 행정구 세 하위 지역에서는 네팔어가 공용어의 지위를 가짐
- 종교 : 힌두교 72.5%, 이슬람교 25.2%, 기타 2.3%

2. 정세

□ 주 정치 체제 개요

- 주 총리(Chief Minister): 마마타베너지(Mamata Banerjee)
- 입법부: 단원제(295석)
- 주요정당: All India Trinamool Congress당, BJP 당, Congress당,
공산당이 이끄는 좌파연합

□ 역사

- BC 7세기 비하르와 벵골 지역(현 웨스트벵골과 방글라데시)에 마가다왕국 번성
- BC 3세기 마우리아(Maurya) 왕조 아쇼카 대제의 지배를 받음
- 기원후 3-6세기 마가다 지역은 굽타 왕조의 근거지
- 기원후 7세기 Shashanka가 독립된 벵골 왕국 창건

- 1202년부터 Delhi Sultanate(이슬람 왕국)의 군사령관 Bakhtiar Khilji가 비하르와 벵갈 지역 침략
- 14세기 Sultanate of Bengal 왕국이 동 지역 지배
 - 벵골 동남부 지역에는 1450년대까지 소규모 힌두왕국이 존재
- 1576년 무굴제국이 벵골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Maharaja가 지배하는 힌두 소왕국들이 존재(1700년대에 소멸)
- 15세기 후반 유럽 상인들이 진출했으며, 1757년 플라시 전투 이후 영국이 지배
- 1772년 캘커타는 British India의 수도로 지정
- 벵골 지역은 영국 식민지하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기능, Subhas Chandra Bose가 이끄는 Indian National Army 무장 독립투쟁의 근거지
- 인도 문화의 수도로 일컬어지며 노벨문학상 수상자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아카데미상 수상 감독 사티야짓 레이(Satyajit Ray)의 고향이자 주 활동지역

□ 최근 정세 : 집권 정당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 1998년 Mamata Banerjee가 Congress당에서 분파하여 창당한 웨스트 벵골주를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당대표: Mamata Banerjee 주총리)
- 정당성향 : 민주적 사회주의, 세속주의, 반공산주의
- 선거 결과
 - 2001년 주 의회 선거에서 Congress당과 연합 60석 차지
 - 2004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1석(Banerjee) 차지
 - 2006년 주 의회 선거에서 Congress당과 연합 30석 차지
 - 2009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19석 차지, UPA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
 - 2011년 주 의회 선거에서 294석 중 184석 차지, 압승
 - 2014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34석을 차지하며 4번째로 큰 정당 부상
 - ※ 연방상원 245석 중 12석 차지
 - 2016년 주 의회 선거에서 294석 중 211석 차지, 압승
 - 2021년 주 의회 선거에서 292석 중 213석 차지, 압승

3. 경제

□ 경제 현황

- 인도 동부의 중요한 상업중심지로서 인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두 개의 주요 항구(Kolkata, Haldia)를 갖추고 있어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와 해상 연결 가능
 - 인도 각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 도로, 공항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발 추진 중
- 인도 내 6번째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주이며, 매우 높은 성장률 자랑
 - 2024/25 회계연도 주 총생산액(GSDP)는 2,18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음
 -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및 61%로, 2차 산업 발달이 저조
- 2000년 이후 매년 70%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IT 서비스 분야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감자, 쌀, 석탄 등의 주요 생산지임
 - 현재 8개의 IT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년내 7개의 IT 단지를 추가 설립할 계획
 - 인도 내 3위의 광물생산 4위임.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르칸트, 오리사, 비하르주와 인접해있고 섬유산업이 발달

□ 웨스트벵골주 중점 육성 산업

가. 화학 산업

- 다량의 황, 인광석, 석탄 등 원재료 조달이 원활하여 화학산업이 발달, 주요 생산품은 소다회(soda ash), 탄산수소나트륨, 수산 화나트륨, 염소, PVC 수지, 황산, 메타 중아황산나트륨, 황화나트륨 등임
 - 주요 기업으로는 Mitsubishi PTA, Haldia Petrochemicals, Dhunseri Petrochemical, BASF, Sika Ag, Nalco Water India Ltd, PMC Rubber

Chemicals, DIC India 등이 있음.

- 인도 화학제품제조연합회(ICMMA)는 웨스트벵골 주정부의 지원하에 중소 규모의 클러스터를 개발 중으로 공동폐수처리 시설, 국제기준시험연구소, 저장시설 등을 포함
 - 콜카타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7,500만 달러를 투자해 400에이커 면적을 개발 중에 있음. 향후 잠재 투자액은 3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미 20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 예약한 상태

나. 식품가공 산업

- 대규모 농업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지형 특성상 각종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다양한 기후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주정부는 이러한 산업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농작물 보관 및 판매 사업에 역점을 둠
 - 냉동보관 및 식품가공시설 설립을 민관합동협력(PP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현재 8개의 식품단지를 가동 중이며, 추가적인 식품단지 개발도 추진

다. 섬유산업

- 웨스트벵골의 섬유산업은 수직기, 동력직기, 황마, 실크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특히, 양말류 산업이 활성화돼 무려 1만7900개의 양말류 제조업체가 존재
- 섬유산업 매출액은 연간 62억 달러로 인도 섬유산업 전체 규모의 6%를 차지, 향후 섬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수년내 12%로 성장시킬 계획
- 향후 섬유산업의 성장에 따라 섬유기계, 화학제품, 염료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 예상

라. 주물산업

- 웨스트벵골은 인도의 주요 주조(Foundry) 및 단조(Forging) 산업 발달

지역으로, 현재 약 500개 기업이 100만 톤의 생산시설을 보유

- 인도의 단조산업은 금형단조(closed-die)와 자유형단조(open-die)를 포함하는데 자동차 및 기타 산업분야에 고품질 주조와 단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 59억 달러 투자해 Raghunathpur 지역에 철강단지 설립 예정

마. 인프라 및 건설 산업

○ 웨스트벵골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현재 보유한 2개 주요 항구와 별도로 새로운 항구를 건설 중

○ 특히 주정부는 항구중심의 산업화를 추진 중으로, 태양열발전소,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화학·플라스틱·고무단지 등이 포함

V. 비즈니스 상담 요령

1. 유의사항

- 신발이 상대방의 몸에 닿는 일은 피하며, 카스트 제도는 법률상으로 이미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사회생활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야간에 홀로 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 요망
- 호텔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으므로 휴지를 반드시 지참
- 생수는 유명 상표의 밀봉된 것을 마시고 현지 식당에서도 음료수에 얼음을 타 마시는 것은 가급적 자제
- 현지인들에게 물건을 건넬 때는 가급적 오른손으로 전달
(아직도 왼손으로 용변을 처리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습관 잔재)
- 인도인들의 초청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류가 접대되며, 식사가 나오면 음주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
- 봉사료의 경우 호텔 포터는 짐의 크기에 따라 20-30루피, 방청소의 경우 20루피, 식당에서는 식사인원에 따라 10-50루피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나 외국인의 경우 100루피 정도의 팁이 일반적
- 열대 몬순지역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많은 비와 높은 온도로 인하여 병에 전염될 수 있으며, 특히 감기의 경우 고열과 한기가 반복되어 약을 먹더라도 1주일 정도 거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
- 체질에 따라 물갈이를 심하게 하는 사람은 체류시 꼭 끓인 물을 섭취하고 국내에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을 경우 출장기간 동안 복용

2. 상담 노하우

- 높은 기후 때문에 인도인들은 정장대신 평상복을 입고 근무를 하며, 공식석상에도 샌들을 신고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인도인들이 정장을 입지 않더라도 참가업체들은 상담회에는 가급적 정장착용 요망)

- 인도인들은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므로 이를 'No'의 의미로 받아들여 당황할 필요가 없음
- 인도가 가격시장인 관계로 인도 기업인들은 상담시 가격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특히 가격네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격협상이 지루할 정도로 지속 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인도 기업인들은 처음 가격에서 최소 10%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상담시 판매가격에서 10% 정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1차 7%, 최종 3%를 추가 인하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가격협상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상담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
- 인도 기업인들에게 추가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줄 경우 여타 다른 기업의 유사한 모델의 가격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인도 기업인들은 가격협상 시 언더밸류를 종종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더밸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인수한 후 선적 등의 절차를 수행

3. 기타 비즈니스 요령

☐ 약속 잡기

- 근무시간은 통상 09:00~17: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3:00~14:00 사이에 이루어짐
 - 인도 경영층은 11:00~16:00에 미팅하는 것을 선호
 - 단, 정작 당사자들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에 유의

☐ 이름 및 호칭

- 상대방을 부를 때 Mr, Ms로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름은 주로 성을 사용하며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름
- 상대방의 직위나 나이가 높은 경우 Sir, Madam이라는 존칭 사용

□ 선물

- 선물 포장은 흰색, 검정색을 피하고 녹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대 받았을 경우 초콜릿, 꽃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되 경조사 발생시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홀수로 끝나야 함

□ 복장

- 더운 날씨로 인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IT 분야의 경우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는 등 캐주얼한 의상이 보편적
- 여성의 경우 전통의상이나 바지정장을 주로 입고, 지역별로 상이한 무늬 및 문양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4. 출국 시 유의사항

- 외화반출은 현금 5,000불, 여행자수표 포함 1만 불이므로 5천불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공항당국에 반드시 신고
- 공항은 비행기 티켓이 있는 사람만이 입장 가능
- 인도에서 180일 이상 체재 후 출국 시에는 “Income Tax Clearance”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VI. 기타 참고 자료

1. 일반 정보

☐ 시차

- 한국보다 3시간 30분 늦음(한국이 12시인 경우 인도는 오전 8시 30분)
 - 현지 기업 근무시간 : 09:00 or 10:00 AM ~18:00 PM

☐ 환전 및 환율

- 환율 : US\$ 1 = RS. 85 수준 ('25년 5월 기준)
- 은행, 공항, 호텔에서 환전 가능
 - 일반적으로 은행에서의 환전이 호텔보다 환율이 유리
 - 미화 5천불 이상의 환전/입국시 외화반입 신고 서류를 요청

☐ 통신

- 국제전화 거는 방법(한국 : 82, 인도 : 91)
 - 00 - 91(국가번호) - '0'을 제외한 전화번호
 - 00대신 +를 사용해도 동일
- 인도 국내 전화 거는 방법
 - 로밍폰 : 00(또는+) 91(국가번호) - 33(콜카타 지역번호) - 전화번호
 - 콜카타 내 전화 : 지역번호 없이 전화번호
 - 뉴델리 전화 : 0 - 11(델리 지역번호) - 전화번호
 - 지역번호(델리 11, 뭄바이 22, 콜카타 33, 첸나이 44, 벵갈루루 80, 구르가온 124, 노이다 120)
 - 인도 개통 휴대폰의 경우 주(州)를 이동할 경우 Domestic Roaming으로 분류됨
 - 인도 핸드폰 번호는 10자리로 구성, 시내 또는 시외 여부에 따라 전화가 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구입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때도 +91을 누리고 전화번호 10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을 추천

- 호텔 내 전화 이용시 : 외부통화 번호(0번 또는 9번) 누른 후 이용
 - 룸 to 룸 : 8 + 방번호
 - 시내전화 : 9 + 전화번호
 - 시외전화 : 9 + 0 + 지역번호 + 전화번호
 - 국제전화 : 9 + 00 + 국가번호 + 전화번호

□ 교통

- 공항에서 호텔까지
 - Uber, Ola 등 차량공유서비스 탑승 지역이 공항 내 별도로 배정되어 있기에, App을 이용하여 차량을 호출하고 탑승지역에서 탑승 후 이동
- 시내교통수단
 - 차량공유서비스 : Uber, Ola가 활성화 되어있으며, 탑승 전 요금 확인이 가능하나, 일반택시에 비해서 요금이 비쌈
 - 일반 택시 : 기본요금이 22루피로, 1.6km당 1.5루피 추가. 시간거리 병산제임(탑승시 미터기 작동여부 확인)

2. 비자발급 정보

□ 출국 전 확인 사항

-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인도비자를 구비하여야 함(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제외)
- 입국가능 대상
 - 외교/관용비자, UN 등 국제기구, 고용/프로젝트 비자 ,비즈니스 비자(스포츠용 B-3 제외) 소지자
 - 외국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인도에 있는 공인 및 등록된 의료 시설, 제약 회사, 대학의 초청장 필요)
 - 외국인 기업체의 엔지니어링/관리/설계 담당 또는 기타 전문가(금융, 제조, 설계,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포함)

- 인도 기업체 초청의 기계 및 장비 시설의 설치, 수리, 유지보수 기술 전문가 및 엔지니어(장비 설치, 보증 기간 내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또는 수리가 이에 해당)
- 고용비자 소지자의 가족, 인도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도인인 자녀 등
-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동반가족
- 인접국가에서 본국 또는 다른 국가로 환승하려는 외국인
-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간병인 1명 포함)

□ 비자 종류

비자종류	주요내용	
E-Visa (전자 비자)	체류기간	- 일반적으로 한 번 입국 시 관광비자 최대 90일, 비즈니스 비자 최대 180일(180일 이상 머물 경우 FRRO 2주 내 등록), 회의 비자 최대 30일, 의료 보조 및 의료 비자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 사이트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	-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tvoa.html 방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어 개인 신청 시 불편함이 많으므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활용을 권고
	유의사항	- 연간 2회 사용 제한 (3회부터는 정식 비자가 요구됨) - 인도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일전에 신청하고, E MAIL로 받은 승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함 (비자신청 후 30일 이내 입국해야함)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빈 비자 사증 이 최소 2면 이상이 있어야함 - 기간연장 및 비자종류 변경불가 - Ahmedabad, Amritsar, Bengaluru, Chennai, Cochin, Delhi, Gaya, Goa, Hyderabad, Jaipur, Kolkata, Lucknow, Mumbai, Tiruchirapalli, Trivandrum, Varanasi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 - 귀국(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충분한 체류비용 소지 필요 (현금, 신용카드 지불가능) - 수수료: 30일 25달러, 1년 40달러, 5년 80달러 - 입국 시 E VISA 전용 심사대가 따로 있음.

비자종류	주요내용	
정식 인도비자 Business VISA	체류기간	- 최대 180일 체류 가능 (산업/사업 벤처 설립, 설립 가능성 탐색, 기타 소속 회사의 업무)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단계 : https://visa.vfsglobal.com/kor/ko/ind/ 방문, 구비서류 확인 및 온라인상에서 신청서 작성 - 제 2단계 : 온라인 신청서를 출력,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처에 제출 (원하시는 면담 날짜로 예약 후 신청 처 방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신청처 : VFS Global 한국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85(구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9-2, 신원플라자빌딩 3층) - 전화 : 070-4044-175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단계 : 면담 및 인터뷰 실시, 1~3일후 직접수령 및 등기수령 * 처리기간 : 약 신청 후 약 1주일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빈 비자 사증 이 최소 3면 이상이 있어야함 - 추가 서류는 http://www.vfsglobal.com/india/southkorea/에 방문하여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참조 - 비자의 유효기간은 인도 입국일이 아닌 비자 발행일로부터 시작됨. - 결제 방식 확인 시 무통장 입금증 이나 온라인 이체 확인증 만 가능함. (개인/회사 수표, ATM영수증으로는 접수 불가능) - 수수료: 한화 199,600원 (은행간 수수료 제외), 입금증은 신청 서류와 함께 서울 인도비자접수센터에 제출해야함.

□ 인도 출입국 가이드라인

- 공항에 출입할 때 종이로 출력된 비행기표를 검사하기 때문에 입/출국 비행기표(온라인 e티켓)를 출력하여 준비
-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인근 종합병원

병원명	주소	전화
Apollo Gleneagles Hospital	58, Canal Circular Road, Kadapara, Phool Bagan, Kadapara, Kolkata, West Bengal 700054	+91-33-2320-2122
Desun Hospital	720, EM Bypass, Desun More, Kasba Golpark, Kolkata, West Bengal 700107	+91-90517-15171
Columbia Asia Hospital Salt Lake	IB-193, Broadway Road, IB Block, Salt Lake City, Sector III, Kolkata, West Bengal 700091	+91-33-3989-8969
긴급전화 (경찰) 100 (화재신고) 101 (앰불런스) 102 (전화번호 안내) 197		

□ 콜카타 지역 주요 관광지

1. 빅토리아 메모리얼 (Victoria Memorial)



인도의 영국 식민지 시절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리석 기념관. 1906년 부터 1921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빅토리아 여왕 기념관과 갤러리, 호수를 둘러싼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월요일 휴관)

2. 성바울 대성당 (St. Paul's Cathedral)



영국 성공회의 대성당. 이 성당은 1839년 부터 1847년 까지 8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고딕양식으로 건축되었음.
콜카타에서 가장 큰 성당이며 아시아 처음으로 감독교회로 설립되었고, 당시 식민지 시절 영국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자국 영토에 세운 성당이라는 특징

3. 마더하우스 (Mother House)



마더 테레사가 생전 살았던 생가와 그의 묘를 안치해 놓은 기념관

4. 타고르하우스 (Tagore's House)



인도의 유명한 시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임. 이 박물관은 3개의 갤러리로 구성되어있고 타고르와 그의 가족들, 벵골 르네상스 시기를 다루고 있음. 갤러리에서는 타고르의 사진과 그의 시와 철학자로서의 업적들을 볼 수 있음 (월요일 휴관)

5. 인도박물관 (Indian Museum)



1814년에 인도를 연구하는 모임인 Asiatic Society에서 설립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인도 각지의 출토품,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음 (월요일 휴관)

6. 성 요한 성당 (St. John's Church)



1787년 설립한 성당으로, 콜카타시를 최초로 건설한 동인도회사 쥘 차녹(Job Charnock)의 무덤이 있음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